광주, 명실상부 '국제스포츠 도시' 도약

2020년 한일·2020년 한중 청소년 교류대회 유치 확정
2개 대회 총 8개종목 620명 참가…예산 4억5천만원 확보

광주시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인 한·중,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를 잇따라 유치했다.

광주시는 2020년에 열리는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2021년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청소년 스포츠 교류 선정으로 광주시는 대한체육회로부터 4억5000만원의 기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에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에 중학생 160여 명이 참가한다.

7월에는 광주시 일원에서 종목별 합동 훈련과 친선 경기가 치러지며, 11월에는 중국에서 교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는 2021년 8월 열린다.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양국 선수단 4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재학생이 참여한다.

2022년 8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교류대회를 통해 훈련과 친선경기 등 스포츠 교류는 물론, 문화체험을 통한 화합의 시간도 갖게 된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광주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스포츠 도시로 한걸음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연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지원에 이어 대한체육회 주관 한·중, 한·일 스포츠 교류대회의 잇따른 유치로 광주가 국제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대중의 삶, 그 불멸의 순간

5·18기록관, 내달 11일까지 서거 10주기 추모 특별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공동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특별전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평생을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위해 노력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고, 화해와 평화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일러스트 작가 손문상 화백의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집필한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해설이 더 해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엿볼 수 있다.

5·18로 인해 내란음모 등의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전시된다.

5·18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연결시킨 재판기록,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김대중 구명운동 관련 일본 기록물이 원본과 영상으로 전시된다.

5·18기록관은 이번 특별전에 이어 '기록물로 본 5·18과 김대중' 학술행사(8월 8일~9일)를 개최해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의 정신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문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062-613-8205.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日 조치, 한미일 협력 훼손 美와 공감"

국가안보실 2차장 귀국…"백악관 인사·상하원 두루 만나"

3박4일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방미에서) 당초 생각한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백악관 인사들,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다.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 다들 우려를 표했고, 개인적으로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우려를 했다.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전략물자기 북한에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미국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언론은 자꾸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 충분 공감한 만큼 미국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한미일 3국 관계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제 답을 대신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는 언제든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서울 모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비공개 면담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 차장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은 내용과 온도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미국 대사관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전국 최다

10만2000ha로 전체 면적 67%…전년보다 16% 증가

올해 전남지역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10만2000ha로 전체 재배면적(15만3000ha)의 약 67%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34만1000ha의 30% 규모다. 지난해 8만8000천여 ha보다 1만4000 ha(16%)가 늘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영광이 벼 재배면적의 96%로 가입률이 가장 높고, 강진 87%, 고흥 80%, 장흥 79%, 진도 72%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높은 가입 실적을 보였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지리적 자연재해 취약성을 감안한 전남도, 시·군, 농협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 활동과 함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는 가입 기간 연장 등 보험 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료로 도비 7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을 확보해 가입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해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행히 지난해보다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8만8000ha) 가운데 가뭄·태풍 등으로 3만300ha에서 피해를 입어 2만여 농가가 63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산업육성 5년 연속 '우수'

내년 지역특화 산업 육성 국비 인센티브 10억원 확보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등급(S, A, B, C)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대상은 지역특화사업의 R&D와 비R&D분야다.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성과관리 노력 ▲사업 성과 ▲특화사업 우수기업·사례로, 서면 검토와 사전 질의, 발표를 거쳐 평가됐다.

광주시는 지역산업육성과 성과관리를 위해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연계한 '전략산업 혁신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내에 전담조직(일자리기획부, 명품강소기업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시책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특화사업 우수기업·사례 부문에서 2018년도 광주기업 대표 우수사례인 인셀(주)은 2009년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지역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광주시는 지역사업 성과평가가 분리 실시된 2014년도 이후 5년 연속 우수등급(A) 이상을 획득하였고, 올해 실시한 2018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주력산업의 국비 인센티브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공인 글씨 '훈민정음체'로

전남도 공인 글씨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교체된다. 기존 공인 글자인 '한글전서체'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모든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로 바꿨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공인 교체 대상은 총 935점으로 전남지사 직인과 전남지사 민원사무전용 특수공인 2점은 담헌 전명옥 선생이 기증한 서체로 교체된다. 전 선생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지사의인

전명옥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 가운데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 서체를 바탕으로 했다"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살리고 선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힘이 있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